



# KAGES NEWSLETTER

한미 지리정보 및 환경과학 협회 소식지

WWW.KAGES.ORG

발행인: 조인정 편집: 이지은

From the President	1
KAGES Forum	2
Special Contribution I	3
KAGES Ethics Council	5

IJGER	5
Members' News	6
About KAGES	7

## From The President

### 회장 인사말



KAGES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13 대 회장을 맡게 된 조인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COVID-19 로 인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새 학년 새학기 모두 힘차게 출발하셨기를 바랍니다.

먼저 Covid-19 으로 인해 처음으로 시도된 온라인 정기 총회를 훌륭히 준비하고 이끌어 주신 윤혜진 전 회장님과 2021-2022 KAGES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중에도 총회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회원 및 후원자 분들과 총회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지난 한 해 KAGES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일반 회원으로 시작해서, 이사로, 그리고 부회장으로 KAGES 와 꽤 오랜 시간 함께 해 왔지만 회장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떠나지 않는 요즘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그간 해왔던 KAGES 의 사업들, 특히 학생 회원님들을 위한 Sim Travel Award (심선희 교수님 후원), Student Paper Award (대한 지리학회, 재미한인 과학 기술자 협회 후원),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지난해 조직되어 올해 첫발을 내딛을 학생 소모임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학회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IJGER)과 지난해부터 수여된 IJGER 신진 학자 논문상 (윤혜진 교수님 후원)의 지속적인 발전도 도모하겠습니다.

COVID-19 로 인하여 회원님들의 학업 및 연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KAGES 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회원님들 간의 소통을 돕고 인적, 학술적 네트워크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KAGES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 뉴스레터가 좀 더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그리고, Webinar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기 총회 이외에도 전

세계의 KAGES 회원님들이 서로 만나서 다양한 교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KAGES 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발전합니다. 북미에서 새롭게 학위를 시작하신, 또는 연구를 시작하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면 KAGES 에 대해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장단 그리고 이사진은 회원님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KAGES 운영에 관련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ijo@txstate.edu)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조인정 드림

Dear KAGES members and sponsors,

I hope this message finds you well. I am Injeong Jo at Texas State University, and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serve as KAGES president for 2021-2022.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thank all members for their support and contributions to KAGES'S activities and events last year. My sincere thanks also go to the former president, Dr. Hyejin Yoon, for her outstanding leadership and the KAGES Board of Directors for their hard work and excellent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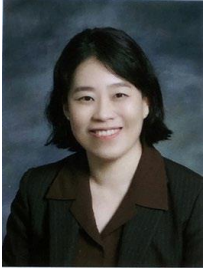
In addition to continuing to develop existing programs and activities, such as travel support, various award programs, and student mentoring, KAGES will strive this year to: 1)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members through multiple venues, 2) support student-affiliated groups and interactions between general and student members, 3) promot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and 4) develop online seminars and events for members to take part in and collaborate on research.

The board and I expect and appreciate your continued support throughout the year.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or suggestions for KAG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t ijo@txstate.edu.

Sincerely,  
Injeong Jo, September 2021

## KAGES Forum

### 미국 내 외국 출신 학자 및 학생들의 공헌과 학문-지역 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윤혜진  
(Hyejin Yoo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Wisconsin –  
Milwaukee

미국의 대학교육은 교육의 질, 고차원적인 지식의 창출 등으로 전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단기, 또는 장기간 유학의 목적지로 선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석박사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온 유학생들에게 많은 의존을 해 왔다. COVID-19 이 영향을 미치기 전인 2017년에는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유학생들 중 21%가 동아시아의 국가 출신이기도 하다 (UNESCO, 2017). 한편 가장 큰 규모의 유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호스트 국가로는 미국이 전세계 유학생들 중 가장 큰 18.6%를 점하고 있다 (ibid, 2017). 이에 따라 동아시아 출신의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들 중 학위를 마친 후, 미국의 대학교 또는 관련 연구 기관 등에 취업을 하는 경우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Corley & Sabharwal, 2007). 이에 백인 남성이 중심인 미국 학계 및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타국 출신 학자들의 이동성과 위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 및 이들의 효율적인 적응을 돕는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출신 학자, 특히 아시아 국가 출신의 학자들이 미국 내 대학 및 학계에 어떠한 공헌을 하며,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조망해 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외국 출신 학자들은 세계화 시대의 미국 대학들의 국제적 경쟁력 및 다양성 담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 출신의 학자들의 공헌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꼽히고 있다. 첫째, 자국(미국) 출신 학자들에 비해 지리적으로 폭넓은 학문적 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내 대학의 경쟁력 상승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Chen & Lawless, 2018), 둘째, 해외에서 미국내 기관으로 수학하러 오는 유학생들에게 경험에 기반한 멘토링 수행이 가능하며, 특히 동일 또는 유사 문화권 출신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Munene, 2014; Li & Beckett, 2005), 셋째, 특히 이공계 분야나 몇몇 분야에서 해외 출신 학자들의 연구 및 논문 출판량이 높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Van Holm, Wu, & Welch, 2019).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국 출신 학자들은 제도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의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커리어 지상주의에 입각한 대부분의 미국내 대학들은 대학 차원에서 기능적인 측면의 적응(예: 강의 기술)에 중점을 둔 지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출신 교원들이 대학 안에서 사회적 또는 총체적인 통합을 돕지는 못하고 학문적 커뮤니티 안에서 배제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Munene, 2014). 둘째,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역사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인종 차별 및 문화적 고립을 면하기 어렵다(Munene, 2014; Van Holm, Wu, & Welch, 2019). 셋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이민 관련 과정들이 쉽지 않으며, 이러한 과정들이 학문에 전념해서 연구 생산도 향상과 강의와 관련한 능력을 증진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신진 학자들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기도 한다. 또한 외국 출신 학자들의 학문적 성취들은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폄하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특히 비 미국 출신 여성학자들은 여타 동료들과 ‘동등하게 평가되기 위해선 두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twice as hard to be treated as equal)’하다고 여겨진다 (Kim, 2019, p.7).

이렇듯 미국내 대학기관들은 타국 출신 교수 및 학생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출신 교수들과 학생들은 학문 및 지역 사회에 녹아 들기 쉽지 않고, 기관의 차원에서 이를 돕는 장치가 미흡하였다. 특히 COVID-19 이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아시아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의 증가로 인한 일터와 지역 사회에서의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C. Glass, K. Bista 및 X. Li 이 편집하여 Routledge 출판사에서 발행한 *Th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Faculty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2021) 중 Hyejin Yoon 과 Jung Eun Hong (University of West Georgia)이 저술한 3 장, Transnationalism of Asian Female Scholars in U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pp. 34-43)을 기반으로 쓰여졌다.

#### 참고문헌 (References)

- Chen, Y. W., & Lawless, B. (2018). “Oh my god! You have become so Americanized”: Paradoxes of adaptation and strategic ambiguity among female immigrant facult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11(1), 1-20. doi: 10.1080/17513057.2017.1385825.
- Kim, H. J. (2019). ‘Where are you from?’ Your English is so good’: A Korean female scholar’s autoethnography of academic imperialism in US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33(5), 491-507. doi: 10.1080/09518398.2019.1681551.
- Lawless, B., & Chen, Y. W. (2015). Immigrant women, academic work, and agency: Negotiating identities and subjectivities with/in the ivory tow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Diversity in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Nations: Annual Review*, 14(1), 39-50. doi: 10.1177/1532708616672688.

Munene, I. (2014). Outsiders within: Isolation of international faculty in an American university. *Research in Post-Compulsory Education*, 19(4), 450-467.

Van Holm, E. J., Wu, Y., & Welch, E. W. (2019). Comparing the collaboration networks and productivity of China-born and US-born academic scientists. *Science and Public Policy*, 46(2), 310-320. doi: 10.1093/scipol/scy060.

UNESCO. (2017). *Th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172>

## Special Contribution I

### Career Development Series 1: Faculty Hiring (교수채용과정에 대한 안내)



허미선  
(Misun Hur)  
Associate Professor  
Director of Community &  
Regional Planning program  
East Carolina University

학교에 머무는 지난 11 년동안 여러번 교수 채용을 위한 search committee 에 관여는 하였으며, 커미티를 이끈 경험은 없어 어쩌면 이 글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가 작은 학교 이다보니 다른 학교와는 많이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희 학교만의, 혹은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일반화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교수로 일 하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단과대에서 교수 자리가 결정이 나면, 학과장과 학과의 Personnel Committee (테뉴어를 받은 교수들: 부교수 및 교수 중 행정을 담당하는 학과장을 제외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커미티)가 모여 Search Committee 를 조합합니다. 누가 서치 커미티를 이끄느냐, 혹은 어떤 사람이 멤버로 있으냐에 따라 채용되는 사람이 결정된다고들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크게 공감합니다. 몇년 전에 단과대 소속 센터 (50%) 및 해당학과 (50%)를 위한 교수채용에 가담 했었는데, 한 전공으로 치우치는 것을 우려해서 모든 social studies 연관 학과장들이 서치 커미티로 소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채용하고자 하는 specialty 와 맞는 Associate Professor 혹은 Professor (full) 교수님들 중에서 커미티를 이끌 사람 (Chair)을 정합니다. 개인적으로 서치 커미티가

시간 및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커미티 체어의 역할은 엄청납니다. 저희 학과의 경우, 체어를 포함 보통 다섯명이 서치 커미티로 구성됩니다. 모든 서치 커미티 멤버는 해당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고, 채용관련 구체적인 일정 (timeline)을 정하고 시작합니다. 채용공고부터 오피까지 짧게는 5 개월, 길게는 10 개월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커미티 첫번째 임무는 채용공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학과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specialties 및 다소 포괄적인 분야를 공고에 넣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출간된 Best Practices for Conducting Faculty Searches 에도 “The position description should be as broad as possible, while obviously noting the desired area(s) of scholarship, experience, and disciplinary background.” 라고 되어 있네요. 비록 “포괄적인” 항목에 해당되는 많은 applications 을 걸러내야 할지라도 어쩌면 놓칠 수도 있는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이유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사실 제가 지원을 하던 당시에 무척이나 막연했던 부분입니다. 채용공고가 광범위해서 제가 지원을 해도 되는지를 알기가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혹 해당학교/학과에 지인이 있다면 정확히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를 물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컨퍼런스에 information session 이 열린다면 가서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로 하는 전공이 본인과 맞다면 cover letter 에 “명확히” 언급하십시오.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 및 자신의 전공이 지원학과, 단과대, 혹은 학교내 타과나 타단과대에 도움이 되는지를 언급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Interdisciplinary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학과에 펀딩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서류가 중요하겠지만, 제가 커미티에 있었을때 가장 열심히 읽었던 서류는 cover letter 였습니다. 지원서류 패키지는 하나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Cover letter 에 본인의 적합성을 적었다면 CV(Curriculum vitae)에는 그동안의 연구 및 티칭이 필요로 하는 전공과 어떻게 맞는지를, 그리고 Teaching and Research Statements 에는 향후 연구 계획이 학과에서 찾는 사람임을 보여주는게 좋겠습니다.

지원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커미티 멤버들에게 지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커미티는 공고에 적은 Qualifications 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심사 항목 (evaluation rubric)을 정하고, 지원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채점을 합니다. 커미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했지만, 제 경험에 비추면 정량적인 채점 (논문의 수, grant 를 써 본 경험 여부, 수상 여부, 등등) 및 정성적 리뷰 (research fit, quality, teaching evaluation, 등) 모두를 고려해서 채점을 합니다. 공고가 마무리되면, 오랜 시간 커미티 미팅을 합니다. 지원 자료를 하나씩 리뷰하고, 각 커미티 멤버의 점수를 종합하고, 혹 완전히 다른 리뷰가 있으면 더 자세히 지원 자료를 보고 서로를 의견을 조정하면서 최종 점수를 매깁니다. 정성적인 리뷰까지도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자들간의 랭킹을 매겨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일차적으로 먼저 추립니다 (대략 10 명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쩌면 “정량적인 랭킹” 이라는 말이 오해를 부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정량적이 굳이 저널 아티클 몇개, 그랜트 금액 얼마, 등의 숫자는 아닙니다. 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를 뽑는 자리에 대학원을 갓 졸업한 1-3 논문에 오직 TA 의 경험밖에 없는 지원자 A 도 있고, 타 학교에서 Assistant Professor 로 일을 5년 혹은 더 오래 일을 하다가 온 지원자 B 도 있고, 혹은 졸업 후 포닥으로 수년을 일을 하다가 온 지원자 C 도 있습니다. 물론 논문의 숫자, 그랜트 금액, 혹은 가르친 과목/년수 로만 비교하면 당연히 지원자 B 혹은 C 가 지원자 A 보다 탁월할 수 있지만, “가능성”만을 정량화 한다면 갓 대학원을 졸업한 지원자 A 가 어쩌면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일차로 추려진 지원자들은 커미티와 전화 혹은 원격 인터뷰를 하고, 그 리뷰를 총괄해서 campus visit 을 위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보통은 세명을 초대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엄청난 지원자들이 많은 경우, 혹은 학과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경우 네명을 초대한 적도 있습니다. Campus visit 관련 계획은 학과장의 도움을 받아서 커미티 চে어가 결정을 합니다. 캠퍼스를 방문하는 동안, 지원자는 단과대 학장, 학과장, 프로그램 디렉터, 학과의 교수들, 그리고 대학원생/학부생들을 각각 만나고, 자신의 리서치 (job talk)를 발표하며, Search Committee 와의 심도깊은 인터뷰를 여러번 하게 됩니다. 보통은 2박 3일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정이 꽉찬 힘든 시간이지요.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야 하는 중요한 자리일 테지만, 사실 학교의 입장 또한 자신을 방문한 최고의 지원자에게 잘 어필해서 그 지원자가 우리의 오피를 받아들이고, 우리 학교에서 성장하는 동료이기를 바라기에 campus visits 은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를 굳이 떠올리자면, Campus visit 준비를 할때 방문하는 학교/단과대/학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고, 일정표를 보고 제가 만날 분들에 질문할 꺼리를 정말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모든 인터뷰가 그렇듯이 그들이 지원자에게 질문한 다음에 지원자에게도 질문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질문들을 통해서 지원자의 열정, 지식, 관심, 가능성 등을 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세 페이지 가득했던 제 질문 꺼리가 결국엔 동이 나 버릴 정도였습니다. 질문내용이 적합한지,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게 나은지 등에 대해서는 지도교수님이나 멘토의 의견을 여쭙어 보심을 추천 드립니다.

Job Talk 에는 관심있는 모든 이들이 초청됩니다. 제가 있는 학과의 경우는 교수 채용이 있는 경우 콜로키움의 발표자 초청을 줄이고 대신 후보자의 job talk 을 콜로키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학과 교수뿐 아니라, 타과의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심지어 졸업생들도 참석 합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혹은 “날 안뽑고는 못 배길걸” 식의 job talk 이 아니라, 내 연구를 다양한 audience 들에 소개하는 연구발표의 형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단과대 소속 연구센터의 교수로 채용되신 분 (한국분이십니다)은 human rights and political violence 를 machine learning 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연구를 저희 단과대 전부를 대상으로 job talk 을 하셨는데, 연구 주제도 방법론도 낮은 단과대 타과 교수들 및 학생들을 정치학과 머신러닝의 판타지로 이끌만큼 쉬우면서도 심도 깊은 발표를 하셨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인터뷰를 어렵게 하더라도 job talk 이 너무 좋아서 오피를 준 경우 또한 몇 보았습니다 (언어는 시간이 가면 좋아지지만 연구자로서의 역량은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최종지원자들을 학교로 불러서 여러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노력, 돈, 시간이 드는 이 모든 과정을 왜 굳이 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채용되는 경우 정말 그 사람이 좋은 “동료”이고 좋은 학과의 citizen 일 수 있는지를 보는 인성 테스트도 한 몫 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채용되는 그 사람이 tenure 를 받는 경우 평생을 함께할 동료이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Campus visit 을 가게 된다면 자신을 충분히, 가식없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Campus visits 이 끝나면 커미티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다시 학과 교수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선거를 합니다. Campus visits 을 한 각 지원자가 “acceptable” 한지를 먼저 정하고, 그들 중 랭킹을 매깁니다. 최종결과를 알리는 것 또한 커미티 চে어의 역할이며, 최종적으로 선택된 지원자가 decline 을 할 경우, 차점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몸담았던 서치에서 일어난 적은 없었지만, 만약 모든 “acceptable”한 지원자가 declines 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 서류 리뷰부터 다시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거나, 혹은 failed search 로 학과는 교수 채용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치 결과를 단과대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서류절차를 밟는 과정은 학과장의 역할입니다. Salary, Start-Up package 혹은 이사비용 등을 본격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모든 것들이 결정되면 공식서류 (offer)를 받게 됩니다.

Job market 에 있는 지원자의 경우 여러 학교에 동시에 지원하기에 “시간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A 와 B 학교 campus visits 을 했고, 두 학교 모두에서 가능성을 보았다면 어디서 먼저 오피가 오냐에 따라 지원자의 (최소) 향후 몇년이 결정나니까요. 앞서 말한 decline 은 아마도 그 시간게임에서 혹은 얼마나 패키지가 멋지게 나와 있냐의 승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 이 상황에 접하게 되신다면, 당장의 패키지 혹은 시간게임의 승자가 어디냐만 보지 말고, 어느 학교/학과가 자기에겐 더 맞는지, junior faculty 의 성공을 위해 학교/학과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등을 자세히 따져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롯히 제 기억에 의존해서 쓴 글이라 중요한 사항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목적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 KAGES Ethics Council

### KAGES 윤리 위원회 소개



반효원  
(Hyonwon Ban)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최근 열린 KAGES 이사회에서 “KAGES 윤리 위원회(Ethics Council)”를 설치하자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본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KAGES 윤리 위원회는 KAGES 산하 단체 중 하나로서, KAGES 이사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KAGES 윤리 위원회는 KAGES 이사회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게 됩니다.

KAGES 윤리 위원회는 KAGES 협회 회원이 관련된 전반적인 윤리 사안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Title IX, academic harassment, implicit bias 등에 대한 교육용 콘텐츠를 KAGES 뉴스레터를 통해 협회 회원에게 소개하고, 전문가 초빙 강연이나 워크숍을 기획, 개최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협회 회원에게 프라이버시가 엄격하게 보장되는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AGES 윤리 위원회는 현재 다음 7 인의 전/현 KAGES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나다순)

- 반효원(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2021-2022 학년도 위원장)
- 심선희(University of North Alabama)
- 안기철(Snohomish County, WA)
- 윤혜진(University of Wisconsin - Milwaukee)
- 차호섭(Park University)
- 최운섭(University of Wisconsin - Milwaukee)
- 홍정은(University of West Georgia)

KAGES 윤리 위원회는 첫 활동으로, KAGES 뉴스레터에 “학계에서의 괴롭힘 (harassment)”에 관련한 교육 내용을 연재하게 됩니다. 이후, 윤리에 관련한 다양한 활동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AGES 윤리 위원회 홈페이지는 KAGES 웹사이트 내 오픈할 예정이며, 상담 서비스 등도 추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IJGER

International Journal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Editor-in-Chief  
Dr. Woonsep Choi (최운섭)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IJGER) is an international journal sponsored by the Korea-America Association for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KAGE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KAGES fosters scientific interactions between Korea and the USA for Korean or Korean-American students, scientists, and professionals in the geospatial-techn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fields. As part of its mission, KAGES launched IJGER to provide a forum for discussion between its members and researchers in the field. KAGES has the ultimate authority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IJGER. IJGER welcomes contributions that fit our aims and scope from anywhere by anyone in the world.

Submit your manuscript to IJGER 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contact the chief editor of IJGER, Dr. Woonsep Choi (choiw@uwm.edu).

### Current Issue: Volume 8, Number 2 (2021) Geospatial Technology in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This issue comprises selected papers that were presented at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matics and Geospatial Technology (GGT) 2021 on 24th March 2021 in Kuala Lumpur, Malaysia as well as the introductory article by the guest editors. After a normal review process, five research articles have been published that demonstrate the use of geospatial technology for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Geospatial Technology in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by Siti Aekbal Salleh, Zulkiflee Abd Latif, and Nazri Che Dom
- *Travel Time Patterns of Students with Special Needs to Special Education Integrated Program-*

*based Schools in Johor Bahru, Malaysia: An Initial Finding* by Nurul Hawani Idris, Nur Afiqah Ahmad Bakhtiar, and Mohamad Hafis Izran Ishak

- *A Comparative Study of Delineated Watersheds Using ASTER and SRTM in Johor, Malaysia* by Nafisah Khalid, Maisarah Abdul Halim, and Siti Nur A'tirah Shahimi
- *Mapping for Indoor Walking Environment from Point Clouds by Using Mobile Mapping Systems* by Nurfadhilah Ruslan, Nabilah Naharudin, Abdul Hakim Salleh, Maisarah Abdul Halim, and Zulkiflee Abd Latif
- *Performance Assessment of GNSS Augmentation System Using Quasi-Zenith Satellite System for Real-time Precise Positioning Method in Indonesia* by Irwan Gumilar, Brian Bramanto, Rifky Yusuf Ananta, Dwi Haryanto, Hasanuddin Zaenal Abidin, Suroono Suroono, and Nobuhiro Kishimoto
- *Geological Lineament Assessment from Passive and Active Remote Sensing Imageries* by Ainnyafiatty Arifin and Nor A. Adnan

## IJGER Early Career Paper Award

This award supports research of the members of KAGES who are either graduate students or early career scholars. The award is sponsored by Dr. Hyejin Yoon in the Department of Geography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Total amount of \$900 will be awarded to three early scholars who publish their research in IJGER for three years from 2021.

## Members' News

### Student Group: Future for Women Geographers (FWG)

FWG is a student affiliated group of KAGES that supports women in geography by promoting female students' involvement and helping their future career development. For that, FWG hosts regular round tables with a guest speaker to network women geographers and provide our members with opportunities to openly share their research and career-based concerns. Any KAGES student members interested in our mission to contribute to a more inclusive environment in KAGES can join us by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m ([Click the link](#)).

For further information on our vision, membership, or beyond, please contact the representative of the group, Sojung Huh ([s\\_h540@txstate.edu](mailto:s_h540@txstate.edu)).

FWG 는 지리학계에서 활동하는 해외 여성 연구자들을 지지하고, 네트워크를 증진하기 위한 학생 소모임입니다. 본 모임의 목적은 여성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연구와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커리어 개발을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회원 정규모임과 현직 여성지리학자 초청 좌담회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 간의 다양한 관심사와 고민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FWG 에 관심이 있는 KAGES 학생회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지원서를 작성하며 제출 해주시면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원서 링크](#)). FWG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허소정 학생회원 ([s\\_h540@txstate.edu](mailto:s_h540@txstate.edu))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Fall 2021 Schedule

#### Discussion Agenda

- Sociology of Loneliness
- Impacts of COVID-19 on Women Scholars
- Migration, Gender, and Scale

#### Guest Speaker (TBA)

- Hyunjoo Jung, Ph.D.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Upcoming Meeting

- Last week of Tuesdays, 8:00am (PT); 10am (CT); 11am (ET)

## Scholarly Accomplishments

- 김규식 (Florida State University): **Publication:** Kim, K., Ghorbanzadeh, M., Horner, M. W., & Ozguven, E. E. (2021). Identifying areas of potential critical healthcare shortages: A case study of spatial accessibility to ICU be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Florida. *Transport Policy*, 110, 478-486.
- 반효원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Promotion:** promoted to Professor of Geography (Fall 2021); **Award:** 2021-2022 CSULB Research, Scholarship, and Creative Activity Awards for Reassigned Time, Improving STEM Education by Integrating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and Digital Cartography into K-8 Mathematics Curriculum. Granted by College of Liberal Arts.
- 전범석 (Texas Southern University): **Promotion:** Tenured and promoted to Associate (Fall 2021); **Publication:** Chun, B., Hur, M., and Won, J. (2021) Impacts of Thermal Environments on Health Risk: A Case Study of Harris County, Texa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8, 5531. DOI: [10.3390/ijerph18115531](https://doi.org/10.3390/ijerph18115531); **Award:** Faculty Excellence Awards (Scholarly Research/Creative Activities). Texas Southern University, Houston, TX; Outstanding Faculty Research Award. School of Public Affairs, Texas Southern University, Houston, TX

- **최운섭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Grant:** Co-PI for WaterMarks: An art/science framework for community-engaged learning around water and water management in an urban area,” and the grant period is 2021-2025 (NSF, \$2,818,705); **Publication:** Choi, W., S. Borchardt, and J. Choi, 2021, “Human Influences and Decreasing Synchrony between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Droughts in Wisconsin since the 1980s,”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https://doi.org/10.1080/24694452.2021.1883416>.
- **허경인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 Promotion:** tenured and promoted to Associate (Fall 2021)
- **허미선 (East Carolina University): Publication:** Chun, B., Hur, M., and Won, J. (2021) Impacts of Thermal Environments on Health Risk: A Case Study of Harris County, Texa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8, 5531. DOI: [10.3390/ijerph18115531](https://doi.org/10.3390/ijerph18115531).

## About KAGES

### Mission

As a non-profit organization, the mission of KAGES is to foster the following for Korean or Korean-American students, scientists and professionals in the geospatial-techn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fields:

- Support for students developing their career successfully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 Support for members developing research, teaching and services
- Promoting interactions between South-Korea and USA in geospati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science fields

### Bylaws

- The KAGES Bylaws was revised and approved by the KAGES Board Members on Friday, April 10, 2015 and the revised version is accessible in PDF format from the following link: KAGES Bylaws. ([http://www.kages.org/season2/wp-content/uploads/2015/04/KAGES-Bylaws-Final\\_5th\\_revision\\_2021.pdf](http://www.kages.org/season2/wp-content/uploads/2015/04/KAGES-Bylaws-Final_5th_revision_2021.pdf))

### Organization

- KAGES was founded on 11/17/2008 with eight founding board members:

Dr. Gi-Choul Ahn	Dr. Yeong-Hyun Kim
Dr. Heejun Chang	Dr. Sun Yurp Park
Dr. Jinmu Choi	Dr. Jeong Chang Seong
Dr. Jongnam Choi	Dr. Changjoo Kim

### Officers (July 2021 – June 2022)

President: Dr. Injeong Jo  
 Vice President: Dr. Misun Hur  
 Secretary: Dr. Hoseop Cha  
 Treasurer: Dr. Hosuk Lee

### 2021-2022 Board members

Dr. Hoseop Cha (Park University): Secretary; Public Relation Committee  
 Dr. Bumseok Chun (Texas Southern University): Technical Support  
 Dr. Kyung In Huh (Cal Poly Pomona): Past President (2019); Research Committee  
 Dr. Misun Hur (East Carolina University): Vice President; Communication Committee, Public Relation Committee  
 Dr. Injeong Jo (Texas State University): President; Legal, International Relation, and Public Relation Committee  
 Dr. Jeon-Young Ka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Relation Committee  
 Dr. Hosuk Lee (University of North Georgia): Treasurer; Communication Committee (Membership)  
 Dr. Jieun Lee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Newsletter; Communication Committee  
 Dr. Sanglim Yoo (Ball State University): Scholarship & Award Committee  
 Dr. Hyejin Yoon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Past President (2020); Legal Committee, Career Development Committee  
 Yoonjung Ahn (Florida State University): Student Board Member; Communication Committee; Technical Support Committee

### Newsletter editor

Dr. Jieun Lee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 Membership Benefits

- Members can actively involve in opportunities by KAGES to network with your professional peers for the fields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science.
- Members are eligible for a variety of KAGES awards and can apply grants by KAGES.

- Members have a voting right for KAGES elections.
- Members can access members-only information at KAGES website.
- Each KAGES member is also to become a member for KSEA-Georgia Chapter during KAGES membership.
- For renewal of membership, or join the KAGES, please visit the KAGES website at <http://www.kages.org> or email at [support@kages.org](mailto:support@kages.org)  
Twitter: [@KagesOfficial](https://twitter.com/KagesOfficial)